



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요. 우리 가족이 독일에 살았을 때, 우리는 마을로 폭스마쉬를 갔어요. 폭스마쉬는 친구들과 이웃이 자연에서 함께 걸으면서 즐기는 활동이에요. 부모님이 친구 한 명과 함께 일행보다 먼저 가도 된다고 해서, 우리는 긴 산책로로 출발했어요.

몇 분이 지나니까 가족들이 아무도 안 보였어요. 나는 친구에게 거기서 가족들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어요. 곧 친구도, 친구의 가족도 더는 안 보였고 우리 부모님도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. 숲속에 나밖에 없어서 무서웠어요. 누군가가 나를

찾도록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어요.

숲 저편에서, 우리 아빠는 성신이 “아들을 찾으러 가라”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셨대요. 아빠는 내가 얼마나 아빠를 필요로 하는지 느꼈고, 그래서 바로 돌아서서 엄마에게 나를 찾으러 간다고 말했어요. 몇 분 후에 아빠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산책로를 뛰어 올라와 나를 찾으셨어요. 나는 아빠를 만나서 정말 기뻐했어요!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강한 느낌을 받은 것에 관해 아빠가 이야기하셨을 때,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.

내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정말 기뻐요. 그분은 내가 길을 찾도록 도와주실 거예요. ■

미아가 될 뻔했어요

